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탄력 받는다

정부 타당성 재조사 추정 예산 반영 전남도 “균형개발 대선 공약 지켜야”

전남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2013년 추경예산 반영'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기준인 B/C(비용편익비)가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낮게 나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지만, 새정부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져 타당성 재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를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예산도 올 추경예산을

■ 광주~완도 고속도로 노선도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의 관건은 '타당성 조사 구간

을 어떻게 볼 것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B/C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다. 전남도는 그동안 B/C가 1.0 이하로 나왔던 것은 도로 전 구간(89.25km)의 이용객을 예측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 구간 이용객이 적어 전체 B/C가 낮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새만금~대구 고속도로(새만금~전주, 무주~대구) 사업과 같이 광주~해남 옥천(73.6km)과 해남 옥천~남창(15.7km) 구간으로 구분, 사업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광주~옥천 구간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C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나눠 먼저 건설하자는 논리다.

또 서울~문산, 전주~논산, 서울~강화, 동해~삼척, 거제~통영, 포항~영덕, 새만금~대구, 양평~이천 등의 도로 건설사업은 모두 경제성 기준인 B/C가 1.0 미만이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거나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된 사례를 들어 광주~완도 간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완도 구간 역시 낙후지역 도로사업인 만큼, 낙후지역 및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00만 자영업자 日제품 불매운동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반대...건국 이래 최대규모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 계획에 반발해 국내 자영업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선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일제 담배 '마일드세븐'과 '아사히 맥주' 등이 표적이다.

25일 금융·유통업계에 따르면 회원 약 600만명을 거느린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은 80여개 직능단체와 6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3월 1일부터 일본 제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다.

불매 운동에는 직능경제인총연합회,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 한국의식업중앙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인터넷문화협회, 한국유통계속식업중앙

회 등이 참여한다.

불매 대상은 '마일드세븐', '아사히 맥주', '니콘', '유니클로', '토요타', '렉서스', '소니', '혼다' 등이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공동 상임대표는 “600만 자영업자는 독도를 지키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모아 대응하려고 한다”면서 “3·1일부터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독도침탈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일본 제품을 불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일 불매운동은 일부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진 적이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우리의 중요 교역국인 일본의 국민을 자극해 양국간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순천만 정월박람회 성공 '후원의 밤' 행사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중훈 순천시장과 이종근(주)부영 회장, 김병현 전 대사, 박경서 전 인권대사, 유경희 법무법인 광장 대표, 이종득 전 항후회장 등 재계순천항우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월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중훈 순천시장과 이종근(주)부영 회장, 김병현 전 대사, 박경서 전 인권대사, 유경희 법무법인 광장 대표, 이종득 전 항후회장 등 재계순천항우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순천시 제공)

광주 장병완·박혜자 거론, 전남은 이윤석 유력

전대 앞둔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 선출 촉각

민주당의 5·4 정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지는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개편대회에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시·도당 주관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따라 개편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시·도당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내 주류와 비주류 진영에서도 각을 못 미치지 그 지역의 85%를 번득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위원장은 경선보다는 추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정 계파 성향의 의원이 시·도당 위원장을 맡을 경우, 전당대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선 현직인 장병완(남구) 의원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당을 잘 이끌어 온데다 임기도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구태여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광주시의회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혜자(서구 갑) 의원도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 유일의 여성 의원인데다,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 기회를 쥐어주지 않는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광주시당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초선인 임내현(북구 을) 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는 광주시당위원장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반면, 김기정·이용섭 의원은 지도부 경선에 나설 예정인데다 차기 광주시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동철 의원은 비대위원이고, 이미

광주시 예산 2조 상반기 집행

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광주시는 25일 “올해 예산 3조 3460억원 가운데 상반기 내에 광주시 1조6500억원, 자치구 3500억원 등 총 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본청과 자치구, 공사·공단 예산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 균형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2조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1억원 이상 주요사업 759건에 대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올 들어 2월 현재 5530억원(28%)을 집행했다.

주요 집행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35억원, 음식물 에너지화 시설설치 75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170억원, 북부순환도로개설 120억원, 야구장 건립 317억원 등이다.

박병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사전 검토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jucky@kwangju.co.kr

광주 북구 오화탁 의원 지방의정 봉사대상

광주시 북구의회 오화탁 구의원이 25일 제5회 지방 의정활동 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주최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오 의원은 합리적인 조정능력과 실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도 호응을 얻었다. 시상식은 26일 오전 11시 대전 선사호텔에서 열렸다.

오 구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귀담아 듣는 것은 물론 구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수매제 폐지 이후 쌀농가 소득 급감

농가 소득 안정대책 필요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쌀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 소득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연구소가 25일 내놓은 ‘쌀 소득의 감소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쌀농가의 쌀 1가마(80kg)당 소득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1998~2004년 평균 11만6214원에서 2005~2011년 10만5591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실질가격 기준 쌀 1가마당 소득은 15만2814원에서 11만2624

원으로 급감했다.

쌀농가는 논벼 재배면적이 1980㎡ 이상인 농가를 말한다.

쌀농가의 호당 소득은 2005년 2265만원에서 2011년 1971만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에 쌀농가의 가계비는 2125만원에서 2077만원으로 비슷해 쌀농가의 적자폭 커졌다.

보고서는 쌀 목표가격 인상 등 쌀농가의 소득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쌀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 /연합뉴스

시장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은 재선의 이윤석 의원이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유력한 상황이다.

이낙연·주승용 의원은 차기 도지사 후보군인데다 김영록 의원은 비대위 김성곤 의원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 등은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당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도전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여수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을 등을 사전 합의한 ㈜용담과 ㈜성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20만원을 부과했다.

축산물 납품업체인 두 업체는 지난 2010년 2월 여수시 10개 초·중학교의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각 학교의 식자재 발주 때마다 휴대전화 이용, 입찰 기초금액의 92%선에서 투찰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도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총 94회의 입찰에 참여해 각각 50회(2억8300만원)와 44회(2억7500만원)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 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결-4738호

2013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모집

3월 중 개강

예쁜글씨 POP & 폰트아트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독서지도	모집기간: ~2013. 3. 8(금)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점핑클레이	노인심리상담사
리더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성격분석 도형상담	가정사역상담사

여성신학원(여전도사과정) 생활한방교육원(산야초 응용관리사) www.kwangshin.ac.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3월 중 개강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